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순천시 의사회장
나창수씨 선임


순천시 의사회는 5일 나창수 씨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기 순천시 의사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회장은 오는 22일 시의회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회장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 다사랑병원
의료법인으로 전환

전국 최초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인 광주 다사랑 병원(대표원장 황인복)이 개원 6주년을 맞아 2월부터 의료법인 다사랑 병원으로 전환하고 공의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사랑 병원은 기존 알코올 치료 전문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회복 지원업무를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독

미래로21 병원장
위구복씨 위촉


미래로 21 병원은 제4대 대표원장에 위구복(사진) 외과 원장을 최근 위촉했다.

신임 위 원장은 위암·대장암·직장암 등 외과분야 탁월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나주종합병원 외과과장·완도 대성병원 외과원장·광주 병원 응급실장을 역임했다.

자적인 알코올 상담 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대일 단주 멘토링 모임 ▲알코올 치료 상담사 육성 ▲찾아가는 가족 치료모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음주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사랑 병원 황인복 대표 원장은 “알코올 치료 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기준 민간 의료기관의 성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의료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일상생활 하면서 피부 흉터·주름치료 ‘분획 박피법’

상처없이 빛으로 ‘옥에 티’ 없앤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이 5일 ‘제나 프락셀 II’라는 신 개념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얼굴 흉터 수술을 하고 있다. 이 기기로 수술하면 흉터나 주름을 없앨 수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름·피부 저침·여드름 흉터·모공·색조질환 및 흥조 치료….

피부과에서 담당하는 미용치료 영역은 다양하다. 이 같은 피부과 미용치료에는 화학 박피나 레이저 박피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통증이 있고 회복기간이 길다는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모공과 여드름 흉터 치료, 잔주름 제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힘들었고, 이러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도 제각각이었다.

최근 이 같은 치료과정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일상생활을 하면서 흉터나 주름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신 개념의 ‘분획 박피’(fractional resurfacing) 레이저

을 회복시킬 수 있다.

또 레이저 빔이 통과하지 않는 주위의 정상 조직이 치료 부위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켜 치료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이 시술의 장점이다. 여기에 피부 표면 각질층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치료 후 곧바로 화장과 면도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1~2일 후면 직장 출근도 가능하다.

치료법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 30분 정도 피부 표면에 마취 연고를 바른 뒤 시술을 하는 데 부위에 따라 10~15분 정도 소요된다. 시술 후에는 3~4일 약한 흥반이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주일 후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횟수는 대략 2~4주 간격으로 3~5회 정도 필요하다.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은 “기존에 여드름 흉터와 모공 치료를 담당해 온 대표적인 기기인 ‘프락셀’ 레이저였다면, 최근 프락셀의 단점이 있던 시술시 통증이 심한 것과 치료 속도 등의 몇 가지 단점을 개선한 ‘제나 프락셀 II’가 개발돼 치료 효과가 높고, 회복이 훨씬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제나 프락셀 II”는 레이저와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분획 박피’란 기준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구현한 레이저 피부 치료법”이라며 “과거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 박피와 화학 박피는 살이 차오를 때까지 부작용이 심하거나 시술 후에는 얼굴 흉반과 색소 침착 등으로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지만, ‘제나 프락셀 II’ 레이저는 이런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수술 시간 10~15분…회복 속도도 빨라

각질층 그대로 남아 곧바로 화장 등 가능

시술법이 등장, 주목받고 있다. 이 시술은 그동안 치료가 힘들었던 흉터(여드름·수두·수술)와 넓은 모공·잔주름·주름 등의 모든 미용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분획 박피’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피부에 끓으면서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하게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피부 표면 1cm당 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70~150미크론(microns)의 미세한 점 크기의 레이저 빔 2천~3천 개를 쏴 폴라렌과 엘라스틴 등 피부 탄력성분이 있는 진피 층까지 레이저 열을 전달하게 된다. 진피층까지 도달한 레이저는 잡티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고, 늘어진 콜라겐 섬유를 짧게 끓어 수축시키게 돼 피부의 탄력

도움말=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

단백질 중 하나인 ‘시토톤 쟁-산화효소’(cytotochrome c oxidase)도 발현이 줄어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이 난자의 발육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가져와 결국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당뇨병을 포함한 대사성증후군 등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특히 자녀의 미토콘드리아가 전부 엄마의 난자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점과 수정 과정에 미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쥐 실험에 나타난 이번 연구결과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머리염색 알레르기 환자 급증

머리염색이 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면서 이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영국의 의학전문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은 지난 3일자 최신호에서 머리염색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파리-페닐렌디아민(PPD)으로 얼굴과 어깨라인에 습진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는 얼굴이 부어오르고 동통성 타박상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금 영국·벨기에·포르투갈·덴마크·독일·싱가포르·태국·일본 등에서는 PPD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환자 수가 130만명에 이르고 있다.

▲미토콘드리아=세포 내에 존재하는 소기관 중의 하나. 세포 내 영양분을 산소와 반응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내 공장에 해당한다.

“HIV 은신처는 고환”

〈에이즈 바이러스〉

佛 데주크 렘스포르 박사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강력한 항바이러스제의 공격을 피해 고환에서 숨어 지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프랑스 렌 대학의 나탈리 데주크-렘스포르 박사는 미국의 의학 전문지 ‘병리학 저널’(Journal of Patholog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최종 피난처는 고환이며 이는 가장 강력한 항바이러스제도 고환 까지 침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

연합뉴스

“가임기 여성 무리한 다이어트

2세에 당뇨·대사증후군 유발”

원자력병원·서울대의대 연구

가임기 여성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 영양결핍 상태가 되면 체내 미토콘드리아 이상을 일으켜 자녀들에게 당뇨 및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데주크-렘스포르 박사는 면역 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들은 모두 에이즈 바이러스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에이즈 바이러스는 특히 고환에 있는 대식세포 안에서 증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임신한 암컷 쥐

10여마리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부터 태어난 지 20주까지에 걸쳐 일반 사료보다 단백질이 3분의 1에 불과한 ‘자단백 사료’를 먹여 영양결핍을 유발한 뒤 각 조건 정상 쥐들과 비교,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생후 20주 된 쥐는 사람으로 치면 20~30대에 해당된다.

이 결과 영양결핍 상태로 태어난 새끼 쥐는 정상 쥐에 비해 출생 시부터 체중이 적었으며, 젖을 뱉은 후 정상 사료를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중이 불지 않았다. 또 생후 20주 된 새끼 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결핍 상태에서 태어난 새끼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모양 및 수자가 비정상적이었고, 미토콘드리아의 호흡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시토톤 쟁-산화효소’(cytotochrome c oxidase)도 발현이 줄어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이 난자의 발육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가져와 결국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당뇨병을 포함한 대사성증후군 등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특히 자녀의 미토콘드리아가 전부 엄마의 난자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점과 수정 과정에 미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쥐 실험에 나타난 이번 연구결과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답률 100%…당뇨·대사증후군 유발”

2세에 당뇨·대사증후군 유발”